

0606

· 문화도시 수원 ·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웰컴투수원’
문화다양성
시 선 집



수원특례시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다름”을 환영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2021년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웰컴투수원’
문화다양성
시 선 집



‘웰컴 투 수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웰컴 투 수원’은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다양성 지원활동을 통해 관내 문화다양성 주체 발굴과 활동 촉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영역 8개를 참고하여 지표영역을 주제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다양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모임 운영과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 례

- 5 ‘웰컴 투 수원’의 시작
- 6 ‘웰컴 투 수원’의 활동과정
- 7 ‘웰컴 투 수원’을 함께 하신 분들
- 12 ‘웰컴 투 수원’의 다양한 활동 알아보기
- 70 소통과 교류의 장, 공존테이블
 - 공존테이블 1일차 “세대란? 구분짓기의 문제”
 - 공존테이블 2일차 “차별에 대한 문제”
- 96 전문가 총평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영역]

- ① 민족·인종·국적
- ② 종교·정치적 신념(타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 ③ 신체·정신적 영역 ④ 성별
- ⑤ 성적 지향·성 정체성 ⑥ 연령·세대
- ⑦ 출신 지역 ⑧ 소수 문화 취향

시민탐구모임과 프로젝트 활동은 문화다양성의 “다름”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슈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① 문화다양성 시민탐구모임 :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다양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탐구모임 운영
- ②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활동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젝트 활동 운영 (문화다양성 축제, 출판물 발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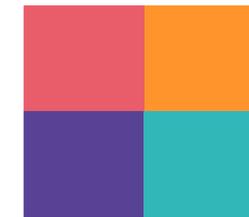


‘웰컴 투 수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나요?

“다름”을 환영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문화다양성 ‘웰컴 투 수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Step1	참가자 모집	2021.6.21 ~ 7.9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수원 거주민/전문단체
Step2	오리엔테이션	2021.7.23	시민탐구모임 15팀 프로젝트 5팀 원활한 문화다양성 활동을 위한 사업내용 공유 및 컨설팅
Step3	시민탐구모임 & 프로젝트 활동	2021.8 ~10	문화다양성 주제로 시민탐구 및 프로젝트 활동
Step4	공존테이블	2021.10.26 ~10.30	문화다양성 참가자 네트워킹 활동
Step5	결과공유회	2021.10.31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 공유회

‘웰컴 투 수원’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나요?



수원 전역에서 **총 19개의 모임과 단체**가 운영되었고

총 169명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성명 (단체명)	주제	구성원	활동내용
차미정	차이이해하기	박금자 허연숙 이미현	노인과 청소년 간 세대 차이가 아닌 함께 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논의 활동 진행
이혜영	신조어로 소통하기	문진희 김인선 김지혜	청소년들과 노인과의 세대 간 이해를 위해 소통의 기본인 '어휘'를 탐구하는 시간
오기석	세대 갈등과 노인문제	김여진 김진주	세대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
김상래	애들은 가라! 노키즈존	노인숙 송은선	노키즈존을 비롯한 세대간 차별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논의
박성희	노인은 실재한다	김주영 고미나 김선미	'노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법 모색
홍은화	3대: 세대의 간극을 넘다	박만형 홍경화 김유진	그림책을 통해 알아보는 연령별 여성의 삶과 세대 차이
13월	세대를 넘어, 연극 속으로 스며들다	장한솔 박민주 이진아	2030세대를 대상으로 연령, 세대 차이를 주제로 역할극 체험
극단메카네	가족, 삶이란 연극속으로 들어가다	최수지 김창환 김성례 안숙녀 조재훈	가족 간 실제 에피소드를 활용한 다양한 연령대를 다룬 역할극 체험
더즐거운 교육	꽃할매들의 즐거운 도전	최지영 김영언 백지은 김윤지	어르신들이 지낸 삶을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발간하며, 북콘서트를 통해 작가들과 마주하는 시간 마련
이유나	그림책으로 알아보는 성평등	권미숙 원미연	'그림책으로 보는 성평등'을 주제로 '책 속의 표현', '일의세계', '사회적 인정' 3가지 키워드를 삼아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는 활동
이정원	신체와 정신을 연결 짓다	김진하 오정하 강정아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탐구하며 타인의 시선 대응과 몸의 말에 대해 문화적 접근
김소라	타로카드로 마음을 잇다	강미정 정은미	심리학을 매개로 토론과 함께 심리독서모임으로 내적 치유 유발
이현주	퀴어를 탐구하다	오경택 박도희 최윤희	퀴어 문화와 콘텐츠를 탐구하고 대중적으로 녹아들 방안 논의
김숙경	수원의 작가를 찾아서	박미경 최상은 권지영	출신 지역이 다른 이들의 시점으로 본 수원 출신 작가의 작품 감상을 통해 그들의 작품성과 생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성명 (단체명)	주제	구성원	활동내용
신연정	있지만 없는 것처럼	박순옥 안수희 김정희	난민, 성 소수자, 성폭력 등 소재를 다루는 책과 기사, 영상 자료를 통해 토론 활동 진행
서른책방	차별과 다름이 구분되는 세상까지	서장원 최지숙 이원형 장진호	2030세대가 바라본 인종차별에 대면하고 토론의 장 구성. 갈등의 간극을 줄이고 결과물로 책 발간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공동체, 북한 이탈주민과 화합하다	강소영 조철상 곽영진 이서윤 김세연	북한 이탈민들과 수원시민 문화공동체 교류를 통해 북한 이탈민 공동체 활성화 바탕 마련
권지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듣다	임동일 이수빈	연령 세대를 비롯하여 장애, 외국인 노동자, 인종차별 등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나아가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
김청극	문화다양성 프레임에 노인의 시선을 담다	류병철 남해복	노인의 시선에서 정치적, 종교적, 출신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차별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고 실천적 대안 마련





인플루언서 세대

Influencer

옛어 사진 :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오픈 사진 : SNS상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MZ세대 : 개인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세대.





‘웰컴 투 수원’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다양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탐구모임 단체와 프로젝트 활동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이 이해하기

차미정
박금자
허연숙
이미현

■ 어떤 모임인가요?

지역사회 봉사과 교육적 요소를 두루 탐구하는 모임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있을 때 주제를 갖고 모여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 공동체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청소년과 노인의 소통을 위해 청소년에게는 노인의 특성과 문제점을 노인들에게는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준 어른이지만 대접받거나 지적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고요. 성공하는 공동체의 특징과 마음의 여러 유형에 관한 공부 등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다양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유래, 다양한 집단의 공동체 알아보기, 다문화 국가의 청년, 노인소통 알아보기, 마음 유형 알아보기, 존중과 소통의 공동체, 사람이 떠나는 공동체, 세대 간의 갈등관리, 해결 대안의 현실, 성공하는 세대 간의 갈등해소,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역사적 유래를 알아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교훈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세대 간 공동체의 소통을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 세대 간의 변화를 이끄는 마음의 힘을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고요. 다섯 번째, 갈등의 의미와 해결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욕구와 목표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각각의 세대에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의 이해와 충돌문화에 대한 서로 피드백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갈등 속 청년과 노인이 건강하게 함께하는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주제 토론의 대화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서 사람이 떠나는 문제에 관해 대화 일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박: 가끔 회사에서 모임을 만들지만 오래 못 가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차: 맞아요. 처음은 의견이 잘 맞았는데 점점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찾는 게 보여서 점점 팀원들끼리 와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모임을 나누어야 하는지 같

피를 못 잡아요.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계속 하면 좋은텐데 말이죠.

이: 왜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박: 남의 의견을 나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허: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 자기주장도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박: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니 서로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면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접점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간극을 좁히려하기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존중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자격증 따는 동아리여서 그런지 자격증을 따고 저는 심화도 하고 싶었는데 필요한 자격증만 따고 모임이 없어지는 경우를 경험했어요.

박: 저는 20여 년 전부터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익을 만드는 모임 이었지만 이제는 친목이 주가 되는 모임이 되어서 거의 지금은 친척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저도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맘며느리 모임입니다. 맘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차: 아직 우리나라는 이해 목적의 모임보다는 정서적인 모임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의 이해가 떠나는 동아리가 아니면 우리의 동아리로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유리의 동아리 혹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정과 포용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조어로 소통하기

이혜영
문진희
김인선
김지혜

어떤 모임인가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자 모였습니다. 처음엔 함께 모여 취미활동(뜨개질)을 하는 모임이었으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고민도 하면서,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씨티 메이커스 대화모임을 작년엔 이어 올해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세대 간 소통의 기본인 어휘를 탐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상황에 맞게 구사하고 소통하기 위해 학생들을 강사로 모셔서 배워봤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 세대는, 또 그보다 어르신들은 어떤 어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부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 7차례에 걸쳐 신조어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횟수로 소통한 대상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초등학생(송죽초등학교)에게 직접 듣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신조어를 배워봤고요. 중학생(수일중학교, 송원중학교), 고등학생(조원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에게 직접 듣는, 요즘 중, 고등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신조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각 2회씩 가졌습니다.

많은 신조어를 배워보셨을 거 같은데요. 신조어를 배움으로써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새로운 신조어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의견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이런 모임을 통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소위 말하는 끈대가 되는 것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이었고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정말 많은 신조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언급했던 신조어를 나열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초등학생

1. 슬세권 :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
2. 나성비 : 나의 심리적 가성비, 예쁜 쓰레기를 사는 나만의 만족감을 뜻함.
3. 멍청비용 : 쓸데 없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버스 탑승 시 청소년 등록을 하지 않고, '초등학생이요'라고 말도 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요금으로 탑승하면 그 차액이 바로 멍청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4. 갈비 : '갈수록 비호감'의 줄임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쓰는 말
5. 핑프 : '핑거 프린세스'의 줄임말. 해석하면 검색 한 번만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들을 채팅이나 게시글, 혹은 다른 게시글의 댓글로 적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검색하긴 귀찮고, 지금 빨리 알고 싶은 게으름뱅이와 욕심쟁이들을 가리키는 말.

중학생

1. TMI :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로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이야기, 혹은 잔소리등을 일컫는 말.
2. 일코 : '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 덕후임을 숨기는 행위로 아이돌 팬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
3. 라방 : '인스타, 유튜브' 등의 라이브 방송
4. 스밍 : '스트리밍'의 줄임말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말함.
5. 팬싸 : 팬 싸인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팬싸는 없고, 영통팬싸(영상통화 팬싸인회)로 진행하고 있다. 실물 싸인은 택배로 보내준다.
6. 어쩔티비 : '어쩌라고~' 대신 사용하는데, 주로 재미있게 웃으면서 말하고 들은 사람은 '저쩔티비~'로 응답하기도 함.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함.
7. 킹받네 : '열 받네.'라는 뜻으로 어이없이 상황에서 많이 열 받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고 한다.
8. 많관부, 많사부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로 SNS 글이나 영상 마지막에 표현하는 말.
9. 킨리적 갓심 :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촉을 발동하여 알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말.

고등학생

1. 녁살족, 뽀살족 : 녁살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뽀세게 살아가는 사람들.
2. 돈미새 : '돈에 미친 새끼'를 뜻하는 말. 무엇이든 해결하고, 돈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
3. 짬바 :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랩퍼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 뭣든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있으면서 내공이 생겨 본인도 모르게 흘러 나오는 스웨그나 바이브를 뜻한다.

세대 갈등과 노인문제

오기석
김여진
김진주



■ 어떤 모임인가요?

젊은 세대, 중장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관계망 향상을 지원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3040 모임 활동으로 얻은 참여자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 대화를 주고 받기 전에 정했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령, 세대란, 10~60대, 각 연령대의 고민과 갈등해소, 노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의 차이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저출산 문제, 부모간의 분쟁, 세대 갈등, 연령 차별 노인에 대한 편견 등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령대별 생각하는 차이점, 세대별 각 목적의식과 개선점, 청년과 노인의 갈등·분쟁점, 저출산 고령사회의 개선점, 생각하는 차이점으로 인해 부모와의 불화 등 탐구, 세대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 에 대한 인식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주제 토론 중에서도 청년과 노인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은 소통이 굉장히 힘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에 마냥 끈대 같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 하고, 말과 행동 면에선 조금 욱하거나 때론 막 대하는 기질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기성세대들에게도 젊은 세대들에 대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사고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은 듯한 동시에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 좋아 진 줄 모르고.’ 등의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깔려있어 갈등 발생 시, 욱하거나, 자연스레 언성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람직하고도 열린 소통과 올바른 관계 개선을 위해선 각자의 위치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왜 기성 세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고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보다 예의 바른 자세로 기성세대를 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봅니다.

기성 세대 분들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미치거나 옳지 못한 태도 등을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가르치려들고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보다는 자극을 주지 않는

좀 더 유연하고도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젊은 세대들을 대하는 것이 이상적일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보다 열린 소통, 존중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은 노력이자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어르신께서 왜 화가 나셨을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예의를 차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네는 게 먼저이고 어르신의 경우에도 그 청년이 철없는 모습을 보였다 해서 개인사적인 자극성 발언은 삼가고, 보다 톤을 낮추고 그를 이해하며 차근차근 타이르듯이 말들을 건넨다면 보다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젊은 세대들이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크게 고독고, 빈고, 병고, 무희고 4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독고는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말벗 서비스로 가정방문 봉사, 전화안부 서비스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다같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일부 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힘듭니다. 빈고는 나라의 지원과 일반시민의 기부와 효율적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병고, 즉 신체적 노후(예, 외상노인 치매노인)는 누구에게나 오는 삶의 과정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젊었을때 부터 노력하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무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작게나마 역할을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종합적인 해결방안은 정부의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시민사회의 봉사의식 고조, 노인에 대한 이해 등이 있을 때 노인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노키즈존(No Kids Zone)

김상래
노인숙
송인선

■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는 수원시립미술관 도슨트로 구성된 3인입니다. 최근 ‘씨티 메이커스’ 활동을 통해 수원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 바 있습니다.

■ 어떤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어린이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노키즈존’과 같은 세대 간의 차별화 문제를 그 사회가 수용하는 융통성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노키존’으로 표현되는 양상에서 엿볼 수 있는 그 세대 간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 세대를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서 심층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 차례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노키즈존’과 ‘벌레충’과의 상관관계, 네 번째,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노키즈존’과 세대간의 차별에 대해, 여섯 번째 ‘노키즈존’과 사회의 융통성, 수용성에 관해, 일곱 번째, ‘노키즈존’과 ‘노오들존’의 관계, 일곱 번째, ‘노키즈존’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일단 노키즈존의 정의를 내리신다면요?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전방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생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집단의 이름 끝에 ‘벌레 충(蟲)’자를 붙임으로써 사람을 벌레로 비하해서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소수의 사례로 모든 엄마와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특히나 ‘맘충’이라는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유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엄마들이 있지만 모든 엄마를 ‘맘충’이라고 부르는 것, 모든 아이를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만들어 카페

이용을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이 생겨나면서 시니어들의 출입을 암암리에 막는 ‘노오들존’도 생겨나는 추세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세대 간 차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고 다양화가 필요한 사회로 각기 다른 개성을 중시하면서 시행착오를 축적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건강한 인간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키즈존’이 합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예절을 가르쳐야 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 중의 부모는 전적으로 아이의 기본예절에 옳고 그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핵가족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오로지 혼자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쨌거나 ‘노키즈존’은 비단 업체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껴안지 못하고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간 자체를 나누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키즈존’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실재한다**

박성희
김주영
고미나
김선미



■ 어떤 모임인가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약간 심하다' 49.7%, '매우 심하다' 14.4%로 전체 응답자의 64.1%로 집계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간 접점이 매우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세대간 문화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여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만든 탐구모임입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꼰통보수', '노망', '고집불통' 등 부정적인 단어들만 붙어있는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노인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따라 붙게 된 것일까요. 세대간 차이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에 이르는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 주로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나요?

문화다양성 이해하기, 세대 소통의 필요성, 세대분석 (사일런트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혹은 MZ세대), 화합과 통합의 방안 모색(갈등의 유형과 원인 파악, 소통과 공감의 사회 캠페인 관련 제작 토의, 실전:영상물 제작 및 홍보)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 주제 아래 세부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다양성의 정의, 문화다양성의 사례, 세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개인, 사회적 문제점 인식하기, 사일런트 세대의 시대적 배경, 성장과정, 특징, 문화, 사고방식 이해하기,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시대적 배경, 성장과정, 특징, 문화, 사고방식 이해하기, MZ세대의 시대적 배경, 성장과정, 특징, 문화, 사고방식 이해하기, 상호 대치 빈도가 높은 세대간의 특징과 원인 파악 및 유형별 갈등원인 파악 (가정, 사회구성원,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동체 별 유형 파악)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주제 토론의 대화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대화합과 통합 방안모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5회차 토론 대화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4회차 동안 이러한 다양한 세대에 대해 시대, 문화, 사회, 교육적인 배경을 심도 깊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 세대갈등의 빈도가 높은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에서 세대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언급한 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88만원세대"라고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핵가족화 되면서 49년 이전생인 산업화 세대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해당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접근없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자극적'인 노인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노인에 대한 왜곡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세대간에 갈등이 깊은

세대는 아무래도 일상 생활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 자녀 세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팀원1) 자기 고집, 아집을 버려야 하며, 다양한 세대의 생각을 포용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때는 이랬는데'라는 생각을 '그래, 그럴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화합은 어렵지만 이해만 한다면 큰 괴리감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인간사회에나 간극은 있지만, 포용심이 있다면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2) 어느 세대에나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갈등을 초래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등) 소수의 특징을 가지고 선불리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감, 소통, 경청이 필요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겠죠. 솔직히 내가 만약 MZ세대라면 "안물안궁" 별관심 없어. 내 갈 길 갈래라고 생각할거 같기도 합니다.

팀원3) 세대 갈등 이유는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큼니다. 나이에 따른 역할들이 시대에 따라 다르구요. 노인세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의 노인은 (이전에 없었던 세대) 새로운 노인을 개척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인세대를 좀 더 세분화 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인세대가 나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팀원4) 세대화합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다른 세대를 이해할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에서 노인 세대를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것도 좋은 이해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보다 할배(tvn)'같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3代: 세대의 간극을 넘다

홍은화
박만형
홍경화
김유진

■ 어떤 모임인가요?

3대가 모여 성차와 연령, 세대에 관한 주제의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임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3대가 만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직장맘인 저를 대신해 친정어머님(박만형)께서 제 딸(김유진)을 키워주셨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할머니와 손녀사이는 각별했지요. 딸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또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할머니와 손녀는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의 정기적 만남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안부가 아닌, 무언가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인 저(홍은화)와 이모인 저의 언니(홍경화)가 함께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 모임을 더 활성화, 가족모임에서 나아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손녀, 손주가 모여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모임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 어떤 이유로 문화다양성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올해 2월 친정어머님이 팔순(80)을 맞으셨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아직까지 건장하신 어머님의 취미생활은 딱히 없으십니다. 네 자녀를 키우고 그 후에도 손녀, 손주들 까지 돌봐주시느라 오직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하셨지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신데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없다 보니 이렇다 할 사회관계망도 없으시고요. 그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로서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지요. <웰컴 투 수원>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모임을 발판 삼아 이 이후에도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책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 모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의 삶과 세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림책을 낭독하고 논제를 통해 서로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저는 승례문학당 '독서리더과정'을 수료하여서 심층적인 논제 만들기과 균형있는 토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생활습관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어서 토론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웰컴 투 수원>의 탐구모임 활동은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단발성 활동이 아닌, 친정어머님께서 거동이 가능하고 그림책을 읽으실 수 있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모임의 활동을 글, 음성,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 또 다른 콘텐츠로서의 창작도 모색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 여러 차례에 독서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대가 읽었던 책 중에서 모두 만족스러웠던 책과 소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책 <100 인생>(하이케 팔러)을 한 명씩 돌아가며, 1쪽씩 천천히 그림을 음미하며 낭독하였습니다. 3대인 20대가 고른 책으로 이전의 1, 2회차와 사뭇 다른 주제의 책이라 신선했습니다. 외국 작가임에도 1

세~100세에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너무 닮아서 신기했습니다. 정확히 내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지점도 있고, 조금 다른 지점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3대의 책 읽은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박만형) : 지난 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잘 생각하며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해준 책입니다. 각 나이 대에 겪는 감정과 깨달음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책에 나온 어떤 나이는 내가 더 나이 들어 느낀 점이라, 만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남편 잘 만나고 자식 잘 들어서 기쁘고 행복했노라고, 그래도 보람 있게 살았노라고 알리고 싶어서 민들레 그림을 택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 곳곳을 날아가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생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2대(홍경화) : 외국 저자인데 이렇게 공감가는 걸 보니, 결국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책의 나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현재의 나를 너무 닮아있었습니다. 그러니 책처럼 미래를 맞기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50세.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어. 누군가 너를 끌어주고 있니? 누군가 너를 밀어주고 있니?'를 택해 그려보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응.”이라고 소리 내어 대답했습니다. (일동 웃음)

2대(홍은화) :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 나이 49세 이후의 일은 세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사라져서였을까요? 그런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58세, 다른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는 일이 너무 어려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부분은 의외였는데, 엄마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회관계가 좀 더 유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집이 생겨 소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3대(김유진) : 제 나이까지는 책에 적힌 내용과 똑같아서 엄청 공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간접적인 공감이었어요. 앞으로 실제로 책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공감하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특히 가장 놀랄 정도로 나와 일치했던 부분은 '18세. 믿을 수 없는 일은 또 일어나. 갑자기 커피가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림은 이 장면과 면허를 반납하려고 고민하시는 할아버지 보습이 떠오르는 '77세. 아직 운전을 하니?' 장면을 그렸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책에서 어릴 적 나이는 1/4 단위로 쪼개서 삶의 경험이 크게 와닿는 순간들이 1년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1~2년 단위로 장면을 건너뛰어, 노년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넘어, 연극 속으로 스며들다

13월

■ 프로젝트팀을 소개해 주세요.

13월은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 및 예술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역이 가진 문화, 역사, 명소,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소재로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연극,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3월은 공연 제작 외에도 예술교육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과정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계기로 ‘웰컴 투 수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수원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 활동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수원에서 작업을 할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해 아쉬웠던 차나 이번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13월이 지역문화를 주제로 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만큼 이번 사업의 목표와도 그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서의 작업과 지역문화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수원시 다양한 연극단>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수원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중심 연극 콘텐츠입니다. 과정 중심 연극만큼 좋은 퀄리티의 공연보다는 참여자들이 공연을 만들어 가며 얻는 문화 향유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령·세대 간의 소통은 사업의 주 목표로서 수원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특별히 연령, 세대를 다뤄보려 했습니다.

■ 실제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원의 20~30대 참여자와 함께 연령, 세대를 주제로 연극 제작을 통한 시민참여형 공연 콘텐츠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연극 제작과정 참여를 통한 문화향유와 연령, 세대 간 소통이라는 두 가지의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령, 세대를 소재로 이야기 구성, 연기까지 연극을 참여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은 연령, 세대별로 각기 다르게 공연관련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때 비공연 전공자들만으로는 공연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없기에 기획자, 연출자, 작가는 13월의 구성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효율적인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의 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리서치 및 연구, 개발 과정을 포함하여 창작물을 완성하고 공연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연습 과정에서는 연극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극놀이, 연극교육 등 연극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든다면요?

우선 좋았던 점은 수원 청년들의 문화다양성 지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다양성, 특히 연령, 세대를 다룸으로서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과 달랐던 것들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정보전달이 아닌 연극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자 스스로 타인이 되는 경험을 통한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에게 연령, 세대에 대한 고찰 기회 제공한 점도 좋았습니다. 관객층은 주로 20대와 50대로 분포했습니다. 이는 현 세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연령들로 본 공연의 타겟 관객층과 일치하여 관객들에게 무대 위 갈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참여자를 모집하는 구간이었습니다. 13월은 수원시에서의 네트워킹이 전무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자 모집은 활성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추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미리 타겟을 구체화하고 모집 경로를 설계하여 효과적인 참여자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교육시스템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할 듯합니다. 연극은 본래 대면을 전제로 하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연극교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준비가 아쉬운 부분과 대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 아쉬웠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공연예술단체에서는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면요?

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극단은 문화다양성이란 카테고리 안 모든 요소들을 다룰 수 있기에 올해 1기는 연령과 세대를, 내년에는 더욱 발전한 프로그램으로 타 요소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민들에게 문화다양성 속 다양한 분야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수원시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삶이란 연극 속으로 들어가다

극단메카네

■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본 극단은 경기지역 연극, 뮤지컬 등의 종합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예술관련 사업(공연, 아카데미, 극장 대관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예술활동에 꿈이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직장인 및 주부,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공연예술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계기로 ‘웰컴 투 수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가족 간 접촉이 많아진, 현 시점에 예전엔 크지 않았던 가족 내 세대 간 불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바, 연령 별 세대간 갈등을 가족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실제 경험한 얘기를 풀어보고 이를 대본화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령별 교차 캐스팅을 통한 낭독공연을 진행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상호 교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대공감 온어는 참가자의 실제 가족간의 에피소드를 대본화 작업하고, 가족 구성원의 본인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으로 연기하여 공연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문을 통한 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역할 바꾸기로 연령과 세대를 이해하고 공연예술인 연극의 일련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극을 올리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코로나 시대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비대면 교육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는 몸열기, 마음 열기라는 테마로 오리엔테이션(놀이를 통한 내려놓기)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몸으로 인사하기, 동작으로 소개하기, 움직임으로 몸 깨우기, 신체 움직임으로 비움과 채움 활동, 움직임으로 감정 표현하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주차는 거리 탐색(가족의 심리적 거리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러링으로 신체 공감 활동,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탐색-인터뷰, 그림책 “위대한 가족”을 통한 역할 탐색, 가족의 소통 방법 탐색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3주차는 역할 경험(가족 감정 탐색 및 역할 경험하기)을 해보았습니다. 몸과 공간의 소통, 움직임으로 소통하기-직진, 좌, 우, 정지 등, 천을 이용한 가족의 심리적 거리 탐색, 역할 바꾸어 즉흥극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는 가족 스토리 만들기(각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 공유와 공감)를 처음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나”를 단어 3개로 표현하기, 스토리텔링 방법, 가족 갈등 상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차는 가족 스토리 만들기(공통된 주제로 각 가족 스토리 통합하기)를 두 번째 진행 했습니다. 서유기, 무한도전, 삼국지의 등장인물로 파악하는 캐릭터를 분석해 봤고요. 각자의 캐릭터와 연극 및 뮤지컬 작품 속 캐릭터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 및 작업 프로세스 공유하였습니다.

6주차는 우리 스토리(대본에 우리를 담다)를 창작해 봤습니다. 대본 초안에 대한 토론하고, 스토리로서 약한 부분 보완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본 최종안 확정하여 등장인물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대본을 바탕으로 낭독을 진행하였습니다.

7주차는 대본 분석(각자 맡은 역할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대사로 표현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물과 대사 분석하고 역할을 체인지 해보고, 분석한 대사의 표현 방법을 익혀 말로 표현하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최종 리허설 과정을 거쳐 공연(역할 바꾸어 가족 낭독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렸습니다.

꽃할매들의 즐거운 도전

더 즐거운 교육



■ 더즐거운교육은 어떤 단체인가요?

수원광교공공실버주택 1층 상가에 입주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Fun&Learn,Together’ 라는 기업명으로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더불어 평등한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즐거운 오후’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책과 예술활동, 놀이와 보드게임, 라디오 녹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기 전에는 청소년교육 중심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노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스톱만 좋아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심심하고, 즐거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실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3년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예술감각과 활력, 소소하게 삶을 향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꽃할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원광교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꽃할매들은 6.25를 겪고,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와 가족과 헤어지고 척박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이고, 한 편의 책이죠. 토박이로 수원에서 살아오신 어르신 이야기는 흑백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고 추억이 없을까요? 풋풋하고 멋진 리즈 시절이 없었겠나요? 코스모스, 동백, 장미, 국화 등 다양한 꽃이름으로 불리는 꽃할매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 100%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꽃할매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들과 따뜻한 시선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라고, 글 작가이자 그림 작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즐거운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담아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를 아카이빙하고자 ‘꽃할매들의 더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예술성을 표현해보는 ‘꽃할매들의 이야기 그림책’을 출간하고 글작가이자 그림 작가로의 등단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코스모스, 장미, 국화, 동백으로 불리는 꽃할매들의 이야기와 그림을 세상에 소개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8회차로 진행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 가치를 정의하고 그림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서 그려지는 감정과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표현하기를 통해 그림책과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삽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치유 작업과 문화 예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꽃할매들의 그림책을 출간하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출간 기념 동영상을 제작 하였으며 행복 주택 공유 공간 및 노인복지관, 관내 도서관에 도서 전시회 진행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우선 참여자들이 출석률이 100%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활동 내용이 그림책으로 완성되어 참여자들의 성취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작품 전시회 그림책 출간 및 자존감 증진 및 노인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행복 주택 공유공간 및 노인복지관, 관내 도서관인 두빛나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서 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실버계층과 가족들,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콘서트를 통해 작가로서의 자긍심 향상, 노인세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실버의 이미지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원e뉴스에 프로그램 소개 및 그림책 전시 기사 2건이 탑재되어 언론 노출이라는 좋은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림책으로 알아보는 성평등

이유나
권미숙
원미연

■ 어떤 모임인가요?

현재 구성원들은 아이를 둔 엄마들로 작년 ‘그림책놀이지도사’의 수업에서 만나,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 뿐 아니라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책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4권의 그림책으로 키워드를 뽑아 다른 책으로 확장하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계기로 ‘웰컴 투 수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림책 스터디에서 키워드를 뽑아 책들을 살펴보다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림책들이 많다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현 시대에 맞지 않게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여과없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주체이므로, 그릇된 사실로 서술된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그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일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지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림책으로 보는 성평등>을 주제로 책 속의 표현, 일의 세계, 사회적 인정의 3가지 키워드를 탐구했습니다. 3가지 키워드로 성별 역할 및 고정관념에서 타파한 책들을 세부 주제로 나누어 찾아봤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 서치한 책들의 공유 및 탐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다양성 및 공존을 지향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양한 책을 섭렵하시고 열띤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책 몇 권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인물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지의 관점에서 고른 책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선정하여 읽었던 3권의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사라, 버스를 타다>

미국에서 흑인차별법이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려낸 책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백인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버스에서 '로사 팩스'라는 흑인 여성은 앞좌석에 앉고 일어나길 거부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진 책입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항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모여서는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 나서서 그에 대해 부당하다고 앞에서 외치는 인물들은 소수죠. 이 책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져 부당한 것에 대항하는 용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실제 인물 로사 팩스의 행동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펜으로 만든 괴물>

우선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가 여성작가라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또 우리 속의 차별적 생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지점도 있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가 글을 썼고, 그 글은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와 같은 글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글이 가지는 힘을 몸소 보여줌으로서 메리가 깨닫는 부분이 부모로서 와닿는 부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있더라도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모습을 꾸준히 발견합니다. 현재에도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여자가 무얼 아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메리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떠올려 글을 써내려 갔던 부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펜으로 만들어낸 괴물 이야기.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그 속의 이야기들을 펼쳐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최은희>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여성독립운동가이자, 기자로서의 활동을 한 이 인물에 대해 조명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신문 최초의 여기자로 기자 시절에도 항일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권리를 높이는데 앞장섰으며, 결혼 후 기자생활을 은퇴하고도 펍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글로 남기는 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인권신장에 앞장 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글로 남기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댓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남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근현대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요즘 펼쳐나가는 성평등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글을 쓴다는 것에 있어 이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누군가가 읽을 수 있게 남기는 것으로도 차곡차곡 쌓여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체와 정신을 연결 짓다

이정원
김진하
오정하
강정아



■ 어떤 모임인가요?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고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5명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평화나비 활동을 함께하며 수원시 씨티 메이커스 대화모임(주제 : 일상에서의 여성인권, 여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제안/2회 참여)에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되셨나요?

작년 상반기 유난히 구성원 모두 “몸이 안 좋아”를 입에 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온전하게 몸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다양한 주제로 <몸=나>를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문화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해보고 싶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리의 정신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로 나”라고 한 여성학자의 말처럼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탐구하며 타인의 시선을 용기있게 대하고, 남의 몸에 대해 되도록 적게 말하는 훈련과 우리 몸의 말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을 마련하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 어떤 세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다이어트, 타투, 혐오표현, 솔직한 몸, 가상인물, 건강한 몸, 존엄사.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몸만들기와 몸살리기, 몸에 기록한다는 것, 말의 영향력, 어덜트 라이프 스타일숍 피우다 탐방기, 휴먼과 AI의 경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죽음도 선택할 권리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폭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군요. 매 회차별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한 번 이상 다이어트의 경험이 있는 우리, 여전히 지금도 “살 좀 빼야 해”를 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일명 조폭들이 과시용으로 활용한 문신이 보편화되어 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봤고요. ““쿵광쿵광”, “허버허버” 등 신체적 태도를 비난하는 혐오표현을 찾아보며 언어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덜트 라이프 스타일숍 피우다를 방문하여 기혼자 5명의 솔직한 성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20대의 “로지”라는 가상인물을 통해 실제 하는 사람이란? 휴먼이란? 뭘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워 바디>라는 영화를 함께 보며 신체보다도 정신이 더 아팠던 30대 초반의 취준생의 성장기를 통해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살다 잘 죽는다는 것이 뭘까? 죽음도

선택할 권리,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회차 <청년의 몸>이라는 주제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부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영화 <아워 바디>를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A : 49세, B : 48세, C : 53세)

A : 2021년 20~30대가 살아가기에 이전과 비교하여 기술적 번영과는 별개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이라는 매개체로 현실 속에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헤쳐 나가려는 청년의 모습, 달리고 달리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 있음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보다는 현실에 맞추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결코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슬픈 청년들의 모습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이기에 달려보고, 끝이 보이지 않기에 달려가는 청춘을 본 것 같았습니다.

B : 전에 사람들과 몸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누군가에게 추천받은 영화입니다. 자기 몸을 챙기지 못한 주인공이 또래의 여자가 뛰는 모습을 보고 따라 뛰면서 자신의 몸을 챙기게 됩니다. 취업도 사랑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친구가 된 그녀와 달리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화 중 친구가 30년 정도 나이가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닌 나이 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봐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몸이 좋다고 할 대상이 자영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C : 저도 그 장면에서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젊은 남자는 상대의 욕구나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몸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자영이 나이 든 남자와의 섹스 장면은 젊은 남자들의 자만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를 느끼고 자신감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D : 자영이 현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았을 때 현주는 자영의 페르소나 또는 그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이 현주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선망하며 따라 하는 행동들은 자영 자신의 무력함을 탈출하고자 하는 본능적 몸부림이 투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살고자 하는 자영의 욕망이 곧 현주였습니다. 선망하던 현주가 자살하면서 자영 안의 불완전한 욕망이 죽으며 이보단 좀 더 완전하게 진화하는 자영의 자아가 새로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평 : 우리 세대와는 다른 갈등(내적/외적)과 가치관의 청년들을 우리식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걱정해왔던 것 같습니다. ‘잘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며, 어떤 제도와 인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타로카드로 마음을 잇다

김소라
강미정
정은미

■ 어떤 모임인가요?

김소라, 정은미, 김미정 세 명은 심리독서모임을 통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마음여행’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세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끝도 없이 외로움이 밀려들 때 만난 것은 책과 타로카드였습니다. 심리책과 타로카드를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 조각들을 찾고, 감정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지도를 찾게 됩니다. ‘마음여행’에서는 책을 읽고, 타로카드로 글을 씁니다. 모두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지도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는 타로카드 그림해석으로 건강한 모임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마음에 신선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새싹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매주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한 후 타로카드를 해석하면서 책에 대한 자기만의 성찰을 이어나갔습니다.

■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당신의 꿈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의 꼬마 예술가를 만나다, 우연과 만남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놀이와 게임으로 해방감 느끼기, 그림책과 타로카드로 내 안의 질문 던지기, 나의 에너지센터를 찾아보기, 주렁주렁 열리는 내 안의 운의 시간 등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각 회차별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1회차는 <드림리딩카드>를 통해 자신의 꿈 탐구하기, 2회차는 <아티스트웨이>를 읽으며, 나만의 아티스트데이트 기획하기, 3회차는 <생의수레바퀴>를 읽으며, 엘리자베스퀴블러로스의 생애 이해하기, 소울트리 타로카드 공부하기, 4회차는 타로카드 스토리텔링 글쓰기, 5회차는 그림책을 통해서 얻은 질문을 타로카드에서 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회차는 <심리학자는 왜 차크라를 공부할까> 책 읽고 토론하기, 7회차는 <나의력키넘버> 책 읽으면서 탄생카드로 알아보는 운명의 숫자 찾아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생산적인 토론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소개해 주실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림책 <구덩이>를 읽고, 타로카드와 연결지어 나만의 ‘구덩이’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이나 그림을 나누면서 관련 있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구덩이’로 상징되는 나만의 시간, 케렌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 ‘당신의 케렌시아’는 무엇입니까??

정은미 : 그림 그리러 가는 화실이요.

김미정 : 요즘은 제가 자주 가는 작업실이요.

김소라 : 저는 책방입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있는 게 좋아요.

‘케렌시아는 어떤 힘을 주나요? 혹은 수원에서 나만의 아지트라고 여기는 곳이 있다면’

김미정 : 수원시는 도서관. 저는 집 앞에 있는 매여울도서관에서 힐링하고는 해요. 이런 장소들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다양성, 영감을 주는 곳이겠죠.

정은미 : 케렌시아에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죠. 수원시에서는 특히 산 같아요. 광고산. 집 앞에 있는 산을 자주 가거든요.

김소라 :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어렵기도 한데, 요즘에는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 좀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문화적인 취향,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 같은 거.

그림책의 그림 중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왜 그러한지 탐색하면서 그 이유를 타로카드에서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 질문이 필요하죠. 살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마주했을 때 쉽게 주저앉거나 남들의 시선에 쉬이 상처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시간을 통해서 심과 휴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림책은 생각의 우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여행’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용되는 ‘마더피스’ 타로카드에서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한 장의 그림을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카드에 나만의 명언 문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정은미 : 자신의 삶을 꽃피워라.

김미정 : 지혜는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김소라 : 당신 안의 창조성을 믿으세요.

마무리 : 창조성과 심, 케렌시아와 ‘장소’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인 향유에 있어서 공간이 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쉬게 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수원시, 내가 살아가는 곳이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퀴어를 탐구하다

이현주
오경택
박도희
최윤희

■ 어떤 모임인가요?

큰 문화라고 하는 수면의 파도에서 우리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과 퀴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세대 간의 공감과 융합을 주제로 한 전시 준비와 콘텐츠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퀴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퀴어 관련 정보 및 콘텐츠와 퀴어 문화에 밀접한 퀴어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콘텐츠 상의 괴리가 있는지, 퀴어인들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거리감을 낮추어 대중적으로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 다양한 방면으로 퀴어문화에 대해 성실하게 접근하셨는데요.

■ 각 회차별로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 말씀해 주세요.

1회차는 대중 매체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퀴어 문화를 탐구해봤습니다. 2회차는 SNS 속 퀴어 문화를 탐구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봤습니다. 3, 4회차는 퀴어 집단의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퀴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5회차는 퀴어 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6, 7회차는 퀴어 문화의 수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 세부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중 매체에는 퀴어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퀴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에 기반하여 생긴 것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퀴어 문화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개인 등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퀴어 문화의 수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제작되면 좋을지, 어떤 정책이 제작되면 좋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주제 토론의 대화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퀴어에 대한 인식을 공존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단체를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기획단체인 '바림': 소수자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지역문화 다양성 확장에 나서 주목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육구 충족을 해소 시켜줌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장으로 펼쳐집니다. '바림'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퀴어-되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인 '퀴어'는 성소수자를 비롯, 장애인,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 소수종교 및 종파,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혼주의자, 채식주의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위

크숍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자긍심을 키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됩니다. 워크숍은 '나와 내 주변을 구성하기'와 '2021년 차별 없는 달력 만들기' 등 2회에 걸쳐 광주 동구 충장로 책방 '소년의 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바림'은 또 50대 이상의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기록: 듣기와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시와 소리로 기록하고, 서로가 서로를 듣는 귀가 되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림'과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은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사업프로그램 '제로의 예술'을 운영했습니다.

퀴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 '가가가가': 청소년 학부모들은 퀴어 문화가 아직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조언과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 상담소가 생겨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퀴어 문화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의 분야는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고 다문화 상담 관련 전공, 탈북민 상담 관련 전공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퀴어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그들이 꾸릴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퀴어 관련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또한 당연히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토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퀴어 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을 보면, 벌써 우리 사회에서 퀴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주체이든, 혹은 문화 수용자이든, 세부적인 타겟을 나누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묵인한 노년 혹은 중년층 퀴어들과의 대화 및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 지역의 작가들을 찾아서

김숙경
박미경
최상은
권지영

■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지역 출신으로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구성원 모두 문학을 사랑하고, 특히 책의 물성을 좋아해서 독서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 다른 현실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갖는 통로로 독서를 통한 문학 탐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수원 작가 탐색부터 독서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동네책방 탐방, 작가의 작품 읽기를 통한 문학 향유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나요?

1회차는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탐구(책 소개, 토론, 리뷰하기) 했습니다. 2회차는 지역 문학 잡지를 훑아 봤습니다. 3회차는 1회차와 마찬가지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탐구해 봤습니다. 4회차는 수원에서 출간되는 문학잡지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5회차는 동네 문학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지역 문학명소인 지동 윤수천 작가 벽화거리, 나혜석 거리를 찾아가봤습니다. 6회차는 5회차와 마찬가지로 동네 문학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의 동네 책방 ‘랄랄라 하우스’, ‘책먹는 돼지’에 다녀왔습니다. 7회차는 지역 문학과 작가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책 탐독하고 토의했던 내용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김숙경 : 함께 읽는 책으로 순우리말 동시집인 [달보드레한 맛이 입 안 가득]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에서 왕성하게 활발하는 권지영 시인의 신작 동시집이기도 하고 우리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기에 축하와 함께 작품 읽기를 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셈이죠. 권지영 시인의 동시집은 세 번째인데 이번에 나온 순우리말 동시집의 출간 배경과 그동안의 동시 쓰기의 노하우, 출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박미경 : 동시집을 안 읽은지 너무 오래 되었는데, 신간 동시집 [달보드레한 맛이 입 안 가득]을 읽으며 시인이 걸어 올린 귀한 어휘와 표현에 감복하였습니다. 한 알의 사과가 익어가듯 정성껏 빛을 쬐어 키워 올린 표현들이 한 편, 한 편 읽는 동안 우리말을 새롭게 익히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야기를 구술하듯 탄탄한 구성이 짧은 동시 안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시집을 내어 주다니 감사합니다.

최상은 : 딸아이에게 먼저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순우리말에 대해 내게 알려주며 예를 들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동시로서 우리말을 사랑스럽게 다듬고 보편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애쓴 노고가 보여 읽는 내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말을 좀 더 곱게 사용하고 순우리말 동시집에 나온 62개의 말들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일상생활에서 다채롭게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지영 : 순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말들을 보다가 예쁘고 고운 어휘들을 골라 하나씩 지은 순우리말 동시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들도 있으나 요즘은 한글 파괴가 될 정도로 언어가 많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시집을 통해 즐겁게 읽고 익히며 문학적 감수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작품집이라 생각합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신연정
박순옥
안수희
김정희

■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기획단 나침반은 시민참여의 시대,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저자를 만나고 강연을 기획합니다. 만남을 기록하고 더 많은 시민과 나눕니다.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을 수강한 시민들이 모여 후속 모임으로 북 콘서트 기획단을 만들고, 44회의 북 토크를 기획, 운영한 바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과 협업, 2018년 편파적 콘서트 <감수성 올림-아프다고 말하기 괜찮냐고 말걸기>, 2020년, 2021년 <수원 문화재 야행: 일상의 기억, 책가도 야행 토크살롱> 기획 운영했고, 2018년 수원시정연구원 주최 수원스토리텔링공모전에 <수원의 인문 씨앗! 독서 모임을 찾아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등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과 관련한 주제 책을 읽고, 기사와 영상 자료 등을 살펴봄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눈 대화들을 기록하였습니다.

■ 다양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소개해주신다면요?

1회차는 이주민, 난민이라는 주제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2회차 역시 이주민, 난민이라는 주제로 <난민, 난민화되는 삶>을 읽었습니다. 질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3회차는 성소수자에 대한 서적 탐구라는 주제로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들의 노동을 추적한 책입니다. 4회차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시각의 폭력>을 읽었습니다. 관음증, 불법촬영, 딥페이크물, n번방 등 시각 폭력의 뿌리를 철학으로 집요하게 추적한 책입니다. 5회차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태도라는 주제로 <별것 아닌 선의>를 읽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 선의(善意)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6회차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태도라는 주제로 <다정한 무관심>을 읽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개인주의 연습,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갑질을 넘는 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7회차는 다양성에 대한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88세 노인과 33세 청년이 5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세대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 매번 치열한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주에 이주민, 난민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르포 형식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이주민과 인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을 성찰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읽기 활동은 편견의 허들을 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허들은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책을 다 읽고 수궁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이 어렵고, 봉사 사이트 1365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공연 티켓 예매를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필수인 쿼알 체크인조차 하지 못하고, 코로나시기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행 법체계 안에서 성인이 되면 언제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 (존재의 합법화 경로: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으로 등록번호 부여 등)이 마련 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전폭적인 지원과 내국인 생각도 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책을 덮어두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별과 다름이 구분되는 세상까지

서른책방

■ 프로젝트팀을 소개해 주세요.

서른책방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독립서점과 카페를 한 공간에 접목한 2~30대 청년들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카페를 활용하여 책에 관심이 없던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출판물이 아닌 독립출판물을 취급함으로써 참신한 젊은 작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활동으로는 독서모임, 필사모임, 오일파스텔 클래스, 나만의 책 만들기 클래스, 소설쓰기 클래스,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수원문화재단 사업으로 '취향존중프로젝트' '소(작지만)소(중)한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 어떤 계기로 '웰컴 투 수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030세대들이 바라보는 현 아시아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통해 갈등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함께 같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2030 함께가치'로 결정했습니다.

■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및 유색인종 차별과 관련한 양극화에 대해 2030세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한 극단적 아시아인 혐오와 유색인종차별 양극화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토론은 다소 치열하게 진행하되 극단적 이념을 확인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인종차별과 관련한 그릇된 문제의식을 극복하고 해결하여 화합하고자 하는 것에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 어떤 세부 주제를 정한 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30 함께'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차별과 다름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통하여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분열이 아닌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출판물은 향후 공익 나눔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토론 세부 주제를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색인종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아시아인 혐오문제에 대한 현재의 인식, 세 번째,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네 번째, 아시아인 혐오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향후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구축 등입니다. 이런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첫 번째, 2030세대들의 잘못된 인종차별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유색인종 차별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2030세대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2030세대들이 나이 들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극단적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갈등의 폭은 줄이고 ‘다름’과 ‘차별’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타 인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지 인종차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차별과 관련한 그릇된 문제의식을 극복하고 해결하여 화합하고자 하는 인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부 작가의 이야기를 넘어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의 프로젝트 결과물 (‘2030 함께 가치’책 발간)을 통하여 2030세대가 분열이 아닌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웰컴 투 수원’에서 책을 출간하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면요?
출판물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다름’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구상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토론 및 정보제공의 간접경험을 통한 문화 캠페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동체, 북한 이탈주민과 화합하다

민주평통수원시협의회



■ 민주평통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과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며 남북한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를 기획한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남과 북! 어울림 문화체험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수원의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생활은 하고 있지만, 수원시민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수원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수원시 산하재단 이곳저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공동체 문화 활동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 등을 보여주고 싶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 진행한 프로젝트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부는 워밍업으로 수원의 재래시장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장보고 음식을 해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보기는 참여자 개개인이 우선 제시한 일정 금액 한도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업으로 인증샷을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 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2부 행사는 ‘동네 한 바퀴’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관심 있어 할 단체 활동들을 찾아서 활동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고 체험을 통해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에서 활동 중인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의 장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해우재 방문은 수원시의 가장 특색 있고 세계적인 문화관련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본 결과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를 통해 세계의 화장실 문화가 변화해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첫 견학지를 수원시 화장실문화 홍보장인 해우재 뚝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 중 체험활동으로 아파트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으로 고 퀄리티인 인삼이 아파트 지하의 버려진 공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모어나 공동체 체험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가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문화 예술인 비중도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그간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커뮤니티로 아파트 공동체에서 홀라댄스 공동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나 이 공동체에서는 시니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으로 아파트 공동체에서도 즐겁고 재미있게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옛날 놀이문화 체험은 수원시 조원동의 한 단체에서 옛날 놀이(예: 제기차기, 자치기 등등)문화 체험 및 전파를 한다고 해서 이 단체를 통해 체험과 놀이문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낭독 네모의 꿈 체험 역시 아파트 공동체에서 시를 통해 문화 커뮤니티를 하고 있다고 하여 벤치마킹도 하고 싶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문화재단의 사업 및 취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곳을 기획하다가 선택하여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각각의 공동체 활동을 소개받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각 공동체 활동 공유 및 체험으로 구성,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원의 공동체 문화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3부는 공유마당입니다. 공동체 체험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그간의 체험을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을 전제로 프로그램화 하고 있으며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활동 중에 인솔자들을 통해 공유회에 대해 사전 교육하고 비대면 회의의 참여방법을 숙지시켜 비대면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듣다

권지연
임동일
이수빈

■ 어떤 모임인가요?

소울크로싱은 문화기획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팀입니다.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세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편견과 맞서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 성장을 주제로 한 시극 공연과 각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예술 공연을 기획했고,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사업 <수원은 학교>에서 세대 간의 통합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웰컴 투 수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문화예술로 표현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제를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점을 수용하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촉진자가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문화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고민하는 문제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고하고 실험하며,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보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있음을 인지하고 실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서로의 가치관과 차이를 연결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탐구모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차별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회차는 ‘당신의 색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외적으로 보이는 피부색의 다름과 다른 인종이기에 받는 차별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회차는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수원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회차는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라는 주제로 나이, 세대 간의 갈등 원인에 대해 토의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언어표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4회차는 ‘나의 말을 들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고독사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5회차는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조사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6회차는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7회차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논의를 환기하고 ‘타인과 나에게 연결된 선’을 탐구하면서 시민탐구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 모임에서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나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크로싱 팀이 시민탐구모임에서 주목한 것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선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으로 연결된 우리의 삶을 탐색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있는 개인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점을 바꾸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불편함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은 뿌리가 깊어서 차별과 혐오의 싹을 도려내기 쉽지 않다는 것, 기회의 균등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과정에 장애가 있거나, 국적 또는 피부색이 다르거나 소외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친절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며 공동체를 지키고 세상을 더욱 좋게 만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의 시민탐구모임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갈등 해소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장애, 인종, 신체적인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인종, 성별, 국적,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연결된 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다양성 프레임에 노인의 시선을 담다

김청극
류병철
남해복



■ 어떤 모임인가요?

2020년부터 수원문화재단의 시민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가 되어 문화를 만들어 가며 발전시키는 기회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시민탐구모임에서는 노인관점에서 본 차별 즉 정치적 종교적 출신지역, 성별에 대한 차별의 현주소를 살피고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나요?

1회차는 수원시 다문화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회차는 종교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3회차는 담당자와 장애인복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4회차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회차는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6회차는 연령과 세대간의 화합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회차는 출신, 소수문화 취향에 대해 토의해봤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원시 구별 다문화 현황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원시 종교파악, 편향된 인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장애시설파악, 그들의 복지수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원시 여성단체기관 파악해보고 성차별이 없는 일상생활 하기,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복지관 활용상의 성의 비율,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성별과 관계없는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일, 참여지역이나 연령층,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 토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주제 토론의 대화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교와 정치적 중립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죠. 종교다원화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개념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종교는 고유의 영역 인정, 차별화된 종교문화 인정. 종교와 샤머니즘은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이해는 개인적 성향입니다. 종교에 대한 편가르기 및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보라는 각각의 가치관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와 문화를 엄격하게 분리보다는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별 음식문화로 사회 속에서 융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집요하게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종교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종교의 장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유성을 지닌 문화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종교별 문화를 통해 사회의 정의와 질서의 구현을 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문화를 종교나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는 시각, 관점을 가지도록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문화다양성과 가치를 인식하는데 있어 사회적 기류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문화의 편견주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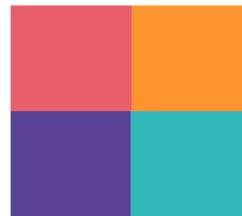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분야와 다른 분야의 관점과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라운드테이블

- 사업명 : 2021년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웰컴투수원> 공존테이블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 일 시 : 1회) 2021년 10월 26일(화) 14:00 ~ 16:00(120')
2회) 2021년 10월 30일(토) 14:00 ~ 16:00(120')
- 장 소 : 실험목장 AGIT

| 세부내용 |

구분	내용	
26일(화) 세대란? 구분짓기의 문제	주제	(세대 소통) 미디어 문화가 변화하면서 세대별로 향유하는 문화적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주요 논의 키워드	세대별 미디어 문화, 고정관념, 세대 구분
	진행내용	주요 논의 장르 관련 키워드를 주제로 질문을 통한 의견 교류
	참석자	최영남, 송은선, 박성희, 홍은화, 13월(장한솔), 극단메카네(김창환), 더즐거운교육(최지영)
30일 (토) 차별에 대한 문제	주제	모든 차별에 반대할 수 있는가
	주요 논의 키워드	혐오 표현, 개인 취향, 고정관념, 윤리, 규제, 옳고 그름, 제도와 정책
	진행 내용	진행했던 탐구활동(관심 영역)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접근과 경계 허물기
	참석자	김숙경, 김정희, 임동일, 이정원, 김소라, 민주평통수원시협의회(김세연), 이유나, 남해복,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소통과 교류의 장 ‘공존테이블’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1일차 공존테이블
“세대란? 구분짓기의 문제”



2일차 공존테이블
“차별에 대한 문제”

| 진행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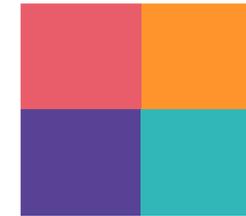
10월 26일 화요일(1회)

시간	내용	비고
13:50 ~ 14:00	10' 참석자 확인	
14:00 ~ 14:05	5' 개회 및 행사 진행 순서 안내	퍼실리테이터
14:05 ~ 15:10	65' 라운드테이블(진행/퍼실리테이터)	전 참석자
15:10~ 15:20	10' 휴식	
15:20~ 15:55	35' 논의 내용 정리 및 발표	
15:55 ~ 16:00	5' 폐회 및 마무리인사	

10월 30일 토요일(2회)

시간	내용	비고
13:50 ~ 14:00	10' 참석자 확인	
14:00 ~ 14:05	5' 개회 및 행사 진행 순서 안내	퍼실리테이터
14:05 ~ 15:10	65' 라운드테이블(진행/퍼실리테이터)	전 참석자
15:10~ 15:20	10' 휴식	
15:20~ 15:55	35' 논의 내용 정리 및 발표	이 완
15:55 ~ 16:00	5' 폐회 및 마무리 인사	

공존테이블 1일차
“세대란? 구분짓기의 문제”



공존테이블 1일 차 “세대란? 구분 짓기의 문제”

2021년 10월 26일에 진행된 문화다양성 웰컴투수원 공존테이블 1일 차는 문화다양성 주제 중 #연령 세대를 주제로 활동하신 문화다양성 <웰컴투수원> 시민탐구모임과 프로젝트팀 참여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차이 #세대별 미디어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참가자 소개 |

최지영

저는 더 즐거운 교육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최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문화다양성 활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한 “꽃할매들의 그림책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책을 기획해서 직접 출간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홍은화

웰컴투수원에서 ‘3대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엄마와 저와 제 딸이 함께 3대가 책을 읽는 모임을 하였고요. 제가 하는 일은 영화 칼럼니스트, 영화 프롤로그 기획 참여와 같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다양성 세대를 주제로 시민탐구모임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 모임은 주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 진로 관련해서 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탐구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선

저는 주부로 그동안 쪽 살아왔고요. 60이 넘으면서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시작해서 하고 있다가 저보다 젊은 도슨트 50대, 20대 두 분을 만나면서 ‘숨털씨앗’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에 참여한 뒤,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야기 “노키즈존”에 대한 것을 탐구했고요. 현재는 셋이서 수원을 방문한 아이들을 위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생각과 느낌을 동화에 담아서 이야기로 만들고 있어요.

김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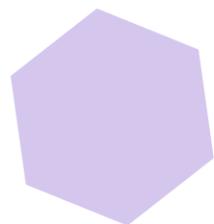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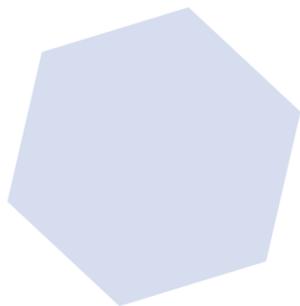
저는 극단 메카네라는 연극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팔달구청 맞은편에 소극장 울림터라는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세대공감 온에어’라는 타이틀로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가족들의 소통, 사람들의 소통을 주제로 해서 강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의 과정에서 창작극을 제작했고, 그 창작극을 공연했습니다. 가족 공연으로, 공연물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꼭 하시기라도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뮤지컬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극단 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솔

저는 13월이라는 창극 집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에 나온 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일을 마구 벌이고 있어서. 연극 뮤지컬 등 관련 지역사업을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정 중심 연극으로 수원의 학생들과 연령·세대 차이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연습까지 해서, 공연까지 직접 올렸습니다.

최영남

저는 수원시의 지인을 통해 굉장히 많은 모임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IT업계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정치, 성, 지역, 인종
 고집, 남자, 여자, 깨자
 고집, 끈대
 나이, 문화, 직업
 선입견, 잔소리, 부정적, 라떼
 소통, 불통, 환경,
 가부장, 답답함

**키워드 1
 고정관념**

토론, 이해, 공감, 보듬기,
 싸움, 노약자석, 노인, MZ세대,
 핵가족, 국민학교, 소통, 대화, 열린
 마음, 경제, 나이, 자기 고집, 독립
 세대 갈등, 성차별, 문화적 문제,
 라떼, 가출, 직장, 술자리
 부자지간, 오해, 차이

**키워드 2
 세대갈등**

스스로 자문해보기

연령 세대를 주제로 활동한 활동가들 스스로 자문한 질문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대별 문화 차이

“세대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박성희

저는 미디어 문화 관련 질문을 써보니까 다 세대 문화에 관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끈대라고 느낀 적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때 내가 끈대라고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저도 끈대라면 끈대일 수 있지만요. 그리고 내가 10대일 때는 어른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기억나? 지금의 10대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좀 더 열리면 좋을까? 이렇게 4가지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미디어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특징을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세대별 다른 미디어 문화를 활용해서 세대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봤나요?”

홍은화

어떤 SNS를 쓰는지 세대 별로 천차만별인듯해요. 저는 텔레그램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또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저는 안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웰컴투수원’을 하면서 3대가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한테 하는 기준으로 생각해봤어요, 처음 질문으로는 어떤 SNS를 쓰시나요? 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카카오톡을 소리, 음성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매체로 어떤 SNS를 쓰고 그걸 왜 쓰는지 궁금합니다.

또 SNS도 파생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카카오톡을 쓴다 치면 카카오편소설을 볼 수도 있고 이어져 있는 다음 사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네이버 관련 SNS를 쓰게 된다면 그쪽 관련 미디어로 접근이 쉬워서 어떤 SNS를 쓰시는지를 물어봤고, SNS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봤는지, 또는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피드백이 좋은지 자문해 봤습니다.

블로그를 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이나 그림책 모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작가님들이 “저를 좋아요, 팔로우해 주세요,” 라고 해요. 원더우먼 외국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가 직접 제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인스타그램의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좋았는지. 회색인간 저자이신, 소설가 김동식 작가님이 있어요. 그분도 저 팔로우 해 주셨고요. 신성희 작가님, 그림책 작가님이신데, 제가 활동했던 사진을 올리니까 저한테 팔로우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맞팔로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궁금했어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또 안 좋은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좋았는데 왜 저런 반응이 나오지? 이런 것처럼 SNS를 하면서 얻는 장단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카카오톡을 할 때와 안할 때, 딸이나 손녀딸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뭐 그런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서 SNS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SNS를 카카오톡만 쓰고 있다면 다른 SNS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지? 지금 하는 것에서 더 확장해서 SNS의 기능을 많이 알고 싶은지? 저희 어머니는 소리로 정말 대화만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른 기능을 더 이용해보고 싶은지 확장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낯선 미디어가 익숙하고 편리한 미디어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최지영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또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저는 첫 번째로 미디어의 벽을 느낀 적이 있나요?라고 자문했습니다.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더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낯선 미디어(키오스크 등)를 경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라고 자문해보기도 했고요. 조금한지 혹은 다운되는 느낌인지, 신나는 지 스스로 체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미디어가 익숙하고 편리한 미디어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가 좋은 미디어일까요?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AI는 과연 세대 간 연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영남

젊은 세대는 어떤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또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세대 간 연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10대 불화가 좀 있었는데, “ai가 요즘 트렌드잖아요” 라고 했을 때 “siri요”라고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10대 친구들은 훨씬 더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고 가상공간을 얘기했더니 “저 제 페토 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확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른들의 문화가 알고 싶은가요?”

장한솔

저는 최근 미디어에서 복고열풍이 유행하잖아요, 이게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지? 1인 미디어로 젊은 친구보다도 오히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과연 1인 미디어를 통해 세대 간 교류가 증대하였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29살인데 SNS를 거의 안 해요. 인위적이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어른들이 10대를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10대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10대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어른들의 문화를 알고 싶었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10대, 20대들을 알고 싶어한 계기가 어떤지? 그걸 알았을 때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사실 10대들을 알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복고열풍이예요. 8090년대 2000년대까지 유행하던 것들이 노출되면서 10대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미디어 외에 10대들이 어른들을 자발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른들이 10대들을 알아가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해요. 다만, 10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쉽죠. 우리가, 어른들이 10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대 간 갈등이 이미 어른들은 10대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제 성장해가는 10대들이 어떻게 어른들을 알아가게 할 것 인지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대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김창환

이들은 과연 어떤 미디어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지? 본인들이 무언가를 찾는 것은 SNS든 뭐든 미디어를 찾는 것은 자기 취향대로 찾는 게 많을 것 같을 것 같은데, 어떤 미디어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지? 그리고 그 많은 미디어 중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미디어가 무엇인가? 떠올려 봤어요.

질문을 좀 심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어서 ORID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세대 차이를 느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때 그것을 느꼈는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세대 차이를 느꼈을 때 가졌던 기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세대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사람이라는 게 각자의 삶이 다른 것이고 사는 방법도 다른데 다른 건 당연히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이해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끝이 아닌가? 역으로 나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문화에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가장 좋은가요?”

송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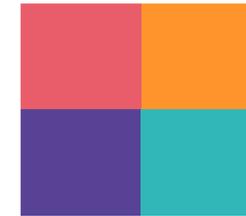
제가 왜 젊어지고 싶어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미디어 문화란 말 자체가 쉽게 와 닿질 않거든요. 미디어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근데도 생각해보면 저도 소소하게 이런 미디어 문화를 즐기고 있던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SNS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것도 ○○○를 했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나도 이미 미디어 문화 속에 속해 있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건 처음 해봤고요. 제가 사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스럽기도 하고 너무 4차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 문화를 사용할까요? 이걸 처음으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가가 쉽게 할 수 있

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엔 어떤 주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나요? 뭐가 궁금한지? 어디 좋은 여행지가 있는지? 등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가치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표현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툴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가?, 세대별로 다르지만 미디어 문화에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가장 좋은가?, 미디어 툴은 무엇이 될 것 인가? 이런 질문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존테이블 2일 차 “차별에 대한 문제”



공존테이블 2일 차 “차별에 대한 문제”

문화다양성 웰컴투수원 공존테이블 2일 차는 수원 문화다양성 8가지 지표 중 민족, 성소수자,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신 문화다양성 <웰컴투수원> 시민탐구모임과 프로젝트 팀 참여자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화의다름 #차별의이해 #소통 에 대해 여러 고민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참가자 소개 |

이완

지역에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이나 사회 등 이해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견디는 마음과 뜻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권을 가질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고, 글 쓰는 여러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복

광고노인대학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고 월드마크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수원시 최우수 모범 경로당을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4월부터 노인대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요가를 경로당 어른들에게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일주일에 2번씩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코로나로 집에 계시는 때가 많은데, 다들 몸도 푸시고 운동도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어른들을 위한 비대면 요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세연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마을 활동인 네모학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을활동이라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문화연합회 교통도 문화로 삼아서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 민주평통이라고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시티를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스마트도시 문화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마을 신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의 저희 아파트 지하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우스 팜으로 이름을 지어서 새싹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합치면 마을 활동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

시민기획단 나침반에서 활동하는 김정희입니다. 오늘 시민기획단이 인문도시 포럼 때문에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모인 소모임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6명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55회 이상을 기획했고요, 몇 년 전부터 수원문화재단과 ‘감수성 올림 기획’도 했어요. 올해도 몇 일전에 시민기획단 나침반 행사를 3일 동안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민기자, 마을활동가, 다양한 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저는 시와 동시에 동화를 쓰고 있고요,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입니다. 이 웰컴투수원은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안내해주셔서 책과 관련된 선생님들과 활동을 했습니다.

이정원

개인적으로는 평화교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에 소속되어 있는 평화와 위안부 할머니 인권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저희 팀을 이야기하면 ‘오자매 날다’라는 이름으로 씨티 메이커스랑 문화다양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씨티 메이커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이 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했지만 힘겹게 참여해서 활동하였습니다. 다들 활동가 중심이구요, 인권과 평화를 강의하는 강사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동일

저는 소울크로싱이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왔고요. 다른 공연을 하고 있어서, 도중에 왔습니다.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모든 게 쉽지 않고 도전의 연속으로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생똥맞을 수도 있지만 모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권지영

제가 하는 활동을 플래너라고 썼는데요, 블로그에는 컬처 플래너라고 썼습니다. 수원시에서 씨티 메이커스 활동을 시작으로 제가 해온 것들을 여러 다른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남녀차별, 성차별, 세대차별, 외모차별, 인종차별, 평등, 장애인, 인권, 다문화, 혐오, 다름, 차이, 소외

키워드
차별



스스로 자문해보기

#고정관념, #인권과 존엄성, #문화다양성 키워드를 주제로 일상속에서 느끼는 차별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공유와 나눔의 과정에서 #차별의 이해 #소통 #문화의다름에 대해 여러 고민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정관념

“일상 속에서 특별히 더 불편한 차별은 무엇인가요?”

이유나

Q. 당신이 느끼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무엇인가요? 또는 일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차별인데 특히나 더 불편한 차별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제가 여길 나오는 상황에서도 겪었던 문제이면서, 이 상황은 성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엄마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할텐데. 제가 무언가를 하려면, 남편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만 나가면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챙겨서 교재를 시켜놓고 밥도 다 먹여놓고 다 데리고 나가는 계획을 해놔야 합니다. 오전에도 씨티 메이커스 발표가 있었어요. 그 발표를 하고 또 아이들이 끝나고 남편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상상 캠퍼스를 와서 그 뒤처리를 한 시간 동안 하고 여기를 왔거든요. 또 끝날 때까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주변에 관광할 게 뭐가 있는지 보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전에 회사생활을 할 때 느낀 것도 많지만, 특히 엄마가 되고 나서는 제가 무언가 활동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직장이 있고 자기 몸만 쉰 나가면 되는데 저도 저의 일을 해야 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꼭 엄마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고정 관념으로 엄마의 역할이다, 해놔야지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차별을 오늘도 경험을 한 게 떠올라서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군가산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김세연

A.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딸하고 나는 대화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자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할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산점으로 됐는데, 어느 날 이거 성차별이다. 가산점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군대 가기를 강요하는, 근데 의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 답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가야 하는 건 맞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것도 맞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맞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것이예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데 왜 남자들만 가산점을 주냐, 그건 너희들이 의무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또 어떻게 정리해야하지?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이정원

A. 그 얘기와 관련해서 ‘20대 남자’라는 책을 저희가 읽었었어요. 20대 남자를 탐구해보는 조건이 있어서 하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게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공정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정이란 단어를 붙이기엔 안 맞거든요. 20대 남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부 다 반대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갔을 때 공정이라는 가치를 유발하는 가치가 깨졌을 때 균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정원

Q.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즘에는 인간(인권)과 존엄성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과연 인간만 존엄성이 있냐는 거죠. 생태계로 봤을 때, 가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인간인데,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지구의 생태 부분이나 기후 같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식물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전체 지구를 봤을 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인간과 존엄성, 인권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김세연

A. 사실 인간 사이에서의 존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환경이나 동물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람마다 사회의 일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범죄자들 그 사람들 생명 보호한다 해서 강조되잖아요. 과연 이게 그 사람들 인권만 보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범죄자 인권은 지킨다고 보장처리를 해주는데 경찰들은 그대로 노출되고 나중에 보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 인권을 먼저 지켜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자가 먼저일까요? 경찰이 먼저일까요?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떤가요?”

이정원

A. 저희가 어제 한신대학교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나? 인데 어제 오신 분들 중에 탈북 여성분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본인들이 10~15년 정도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한 기간이 있지만, 자신은 절대로 지금도 조선인이라 하지 이 탈주민이라고 안하신대요. 오히려 조선족보다 차별이 더 심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 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많고, 차별 당한게 많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셔서,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신대학교 대학교육원에서 수강하시는 이탈주민들을 모시고, 퍼실리테이션을 했었거든요.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탈주민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분들은 조선족이라고 하지, 이탈주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또 아이들이 학교갈 때 이탈주민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일상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권지영

Q. 저는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일상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존재도 존엄성, 인권 이런 것들이 교과서적인 대답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인권인식공유회, 생명존엄성을 지켜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족이, 아이가, 내 주변에서 이런 거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정원

A.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일회용품 줄이기 아닐까요?

“당신이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권지영

A.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했던 것인데,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아침에 밖에 나무를 보면 특정한 나무를 그 나무가 뭔가 “엄마 어제보다 색깔이 어느 정도 변했어, 그래서 보고 있었어.” “오늘은 나뭇잎사귀가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자연의 변화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는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구나, 라고 아이가 나에게 반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변화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김소라

A. 초등학교 때 보면 아이들 식물관찰일기를 쓰잖아요? 싹을 심었다. 싹이 나왔다. 떡잎이 나왔다. 이거를 자기가 무언가를 키워보고 기록하고 관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작은 것을 관찰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글로 쓰면서 그것에 공감하는 연습,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취향, 편견,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김정희

Q. 소수자들을 위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쓴 활동가들의 책이라든지, 그걸 전공으로 한 조선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분이든, 여성분이든 다 약자들이잖아요. 그 약자들하고 잘 공존해서 살아야만 하잖아요.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차별적인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항상 나침반 단원들하고 의논해 보는 게 각자 선의를 베풀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자고 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을 도왔다든지,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감동을 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지 말이죠. 또한 나침반이 ‘다정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서 이야기해보기도 했습니다. 각자 그런 다정함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사회활동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사회에서 누구든지 간에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약자를 위해 각 개인이 선의를 좀 베풀어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나요?”

김정희

A. 옆집에서 가스를 안 끄고 가서 집안이 연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년 있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줬던 걸 저에게 고마웠던 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일화는 어떤 초등학생 아이를 엄마가 혼내고 있었어요. 놀다가 동생이 돌아간 다음에 아파트를 보면서 그 아이를 되게 다독여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른 일을 하시던 엄마가 보신 거예요. 멀리에서나마 내 딸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정신적으로 약자인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친구를 사귀었어.”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학 왔었거든요.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학 온 아이도 소중한 친구를 얻어서 너무 좋다고, 전학 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친절하게 베푸는 것에서부터 좋은 인간 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요.

—
“권력은 어떤 식으로 쟁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 완

Q.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내용이 이뤄졌고, 왜 어려웠나. 생각해봤더니 어느 순간 전문 가란 소리를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만, 뒤에 앉아있기보단 앞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훨씬 많은데요. 마이크를 독점하기도 하고 사실은 질문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고 해답을 드리는 것처럼 했었는데, 컨설팅을 하고 이런 건 처음이라서.

이 친구는 굉장히 낯설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권력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제가 사업을 받게 된 것을 타이틀로 여겨왔기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남성이기 때문에 생긴 권력일 수도 있고, 또는 4050대의 기성세대라는 권력이 있고, 또는 한국인이라든지, 또는 이 성애자라는 권력, 또는 규정에 따른 권력이 있고 아까 우리 주제가 차별이었으니까, 차별을 받지 않는 조건은 사실은 다수의 배려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권력을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 가의 문제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쟁취하는 과정이 어떤 때는 조금 거칠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어떤 순간에 권력자인지를 깨닫고, 권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뜬금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맞겠죠?”

남해복

Q. 저는 노인의 눈으로 본, 이런 장애인이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거지, 끈대라는 말도 있지만은 현대 세대와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자 논의하는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은 유교시대의 그런 특별한 그런 유교사상에 빚대서 여성은 가정의 가사, 가정일로만 보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할머니도 공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공놀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 제약하던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 운동이라든지 신소설을 읽고 그렇게 싸워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역사를 들어가서 여성책을 봐도 우리나라만 보면 외국에도 그런 여성차별이 골고루 계속 내려왔고 여성의 선

거권이 생긴 것도 최근이고. 근데 우리 이제 현재의 사회에 도달해 평등이라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상속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풀렸잖아요? 직장에서도 이제는 육아휴가를 주도록 했다는 것, 핀란드 같은 나라와 거의 버금가게 되면서 지금 시행하면서도 직장에서 막상 휴가를 잘 못 냅니다.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남성우위적인 이런 사상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인 입장에서 인정해야만 하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렇듯 이런 현상들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어디까지나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자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활동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후계를 낳았을 때도 그런 인식하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내년에 2조 이상의 상장 법인은 8월까지 여성 임원 무조건 1명은 채용하기로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 정부의 전체를 통틀어 평균 32%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50%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갈길이 먼거죠. 아직도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아직은 차별이 되어있고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아직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러나 이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회적 문제든 뭐든 나타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고 동등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역할상에 남성이 해야할 고유한 것과 여성의 고유한 것에 한계는 있지만 그 외 부분은 동등하게 가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원인, 존엄성 이런건 동등하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야하고, 우리가 그렇게 끌어줘야 하겠죠. 일반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우리 모든 사회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성희롱, 성추행 문제 같은 것이 현재 이슈화되는 문제들의 해결은 솔직히 안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발생을 함에도 이웃이나 사회가 아직도 눈감고 있는 그런 현재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험, 한번 씩은 다 있지 않나요?”

이유나

Q. 다들 열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느낀적은 없었는지. 어떨때 그런 생각을 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열린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내게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요.

전문가 총평 _이 완

안양에서 안양시민의 천 명이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안양시민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 읽는 영상을 촬영하고 시장님에게 보고 후 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진행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안양시의 도시정책과의 팀장님이 안양시의 모든 CCTV를 총 관리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고 출동 지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양시에 CCTV가 6천개가 있대요. 시민이 60만명 정도 되니까 100명당 1명꼴로 CCTV에서 나오는데요, 시민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나보더라구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저희가 질문을 한 게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 범죄율이 줄어드나요? 라는 의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CCTV를 설치하면 보이는 곳에서는 범죄율이 줄어들지만 사각 바깥으로는 범죄가 늘면서 전체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CCTV 한 대에 3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3천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지, 여성들은 왜 위험에 노출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데 비용을 썼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그 팀장님이 대답하시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라는 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게 안전욕구잖아요? 안전하게 살아야지,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취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게 첫 번째 방식이거든요. 도시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랑 이웃이 최소한 안 만나는 방식으로 주차공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뒤에 누구나와 만나지 않도록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장벽을 높이기 등 그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CCTV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CCTV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공간은 CCTV를 설치하고 장벽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며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CCTV가 나를 봐주었으면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본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과 다양한 과정들은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회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웰컴투수원> 문화다양성 시선집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행일 2022. 02. 28
펴낸곳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기획처 서른책방, 서장원, 임발
디자인 최지숙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546
팩스 031-290-3590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wcf.or.kr
문화도시수원 홈페이지 www.swculture.or.kr
문화도시수원 인스타그램 @sw_culture
유튜브 @문화도시수원
블로그 blog.naver.com/swcf_kr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수원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웰컴투수원’ 문화다양성 시선집

